내 몸은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로마서 6:12~23)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몸은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몸은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싸움이나 전쟁을 전제로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24시간을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몸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삶을 사는 것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무기를 사용하여 싸움이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기에 몸이 “불의의 무기”이거

나 “의의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의 몸은 지금 “불의의 무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의의 무기”일까요?

몸은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무기라 할 수 이유는 상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주권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존재나 대상들이 움직이거나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리쬐듯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에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생각과 주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별도의 움직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주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몸을 움직일 경우입니다. 그럴 때 나를 둘러싸고 비나 햇볕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몸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경우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음에 드시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창조 때 단계별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불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와 이웃과 대한민국과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일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모두가 불의로 살아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와야 할 삶의 현장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전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은 결국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몸은 무기이며 삶은 전쟁인 것입니다.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경우는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싸울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은 의의 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사람은 몸을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삶 자체는 어느 쪽으로 보나 전쟁입

니다. 문제는 삶이라는 전쟁에서 몸을 어떤 무기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내리누르는 반성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맞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믿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믿음과 연관된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실들을 간과해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구절에만 집중했지 이 구절 안에 포함돼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가 종교로 변질되고 힘을 잃어가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은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한 채 종교지도자들의 의욕과 열심만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믿음과 연관된 사실들을 모두 절단하고 제거해버렸습니다. 거세된 믿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였고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4장에서는 이러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예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듯이 믿음은 율법이나 종교적 의식과 교리보다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종교가 믿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을 보면 믿음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언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상태가 삶의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옮겨져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소망의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늘을 향하

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형태로 발전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장에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소망의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잡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절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출발하였다면 부활에 이르러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소망의 형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자리에 근거되어 있는 새 생명의 삶을 통하여 확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죄 용서받는 은혜, 죄 없이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자리를 지나 부활의 자리에서 새 생명 안에 거할 때 그 증거로 죄 없이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통해 믿음의 올바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을 현실로 느끼는 믿음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대상들에 대한 믿음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확증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망은 새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의 형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될 수 없다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내용 뒤에 붙어 있는 6장까지의 내용을 다 거세해 버린 채 받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죄 사함을 받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새 생명에 거하는 삶 대신에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기심과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생각으로만 구원

을 받았다고 여기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읊어댑니다. 성경의 앞뒤 맥락은 다 잘라버린 채 이와 닮은 구절들을 찾아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면서 생각 속에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결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캘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인용하지만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에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였고 제 주위의 친구 목사님들의 모습이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로마서를 통해서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거창하게 종교개혁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집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몸을 무기로 표현하였습니다. 12~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가 구분되어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는 상황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상태라 말합니다. 앞서 6절에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실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란 빗나감을 의미하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핵심은 의식과 마음입니다. 의식은 무엇인가의 있음을 자각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붙어가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의식한 대상의 좋음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채워지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마음의 기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의식과 마음이 빗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육체에 붙어버리자 몸의 오감을 통하여 만나고 접하게 되는 이 세상 것들을 있음과 좋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식과 마음이 몸과 일체가 되는 바람에 몸의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버린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이로부터 몸이 죄의 상태에 종노릇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오감

으로 피조물인 세상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몸에 붙어버린 의식과 마음은 있음과 좋음을 몸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로부터 포착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접한 돈을 의식에서 느끼고 마음이 좋아하게 되자 그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돈을 갖고자 몸의 사지를 움직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죄에게 종노릇을 하는 상태입니다.

죄는 빗나감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사지가 움직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순간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의를 확장시켜서 내 몸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버지 마음에 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나의 몸의 움직임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상태에 종노릇하는 동안에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의식과 마음은 본래 오직 하나님의 있음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만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빗나가서 몸에 붙게 되자 몸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을 있다고 느끼고 좋다고 느끼는 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상태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그로부터 다시 몸이 움직이며 죄에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된 상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을 통해 의로운 상황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의로운 상황이란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식으로 아버지의 있음을 느껴야 하고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좋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13절을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증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인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언급하는 내용에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숨어있습니다. 의식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의식과 마음이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존재에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시간에 약을 먹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한 약이 개발되었다면 승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죽음을 내가 먹는 과정이 간구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체질 안으로 복음이 들어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구함으로써 내 몸에 붙어 있던 의식과 마음은 예수님의 몸에 붙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식과 마음이 몸에 붙어 있었던 존재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은 예수님의 몸에 붙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드림이 나타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인격의 핵심인 의식과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나면 의식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이 붙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가셨기에 나의 의식과 마음도 예수님의 몸을 따라 올라가 아버지만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전에 나의 몸과 일치가 되어있던 의식과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과 일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자리에서 나의 의식과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의 대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는 몸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사에 나가 사장님을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의식은 사장님이 아닌 하나님의 있음을 느낍니다. 돈 문제가 생길지라도 돈 문제의 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 부활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증거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세상에 남아있는 몸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의식과 마음이 몸에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으로 의식과 마음이 옮겨가게 되자 몸은 세상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6장 전체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죄는 의식과 마음의 빗나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의식과 마음이 붙자 빗나감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의식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됨으로써 빗나가지 않고 적중하게 된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으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의식과 마음이 몸과 붙어 있어서 몸의 오감이 포착하는 세상 것들로부터 있음과 좋음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몸을 움직였고 몸은 움직이는 족족 죄를 짓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십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하더라도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있음과 좋음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기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몸의 움직임 또한 모두 불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이 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생각을 쳐내고 끊어내고 방해하고 훼방하게 됩니다. 나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에 의식과 마음이 붙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적중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몸 또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몸을 지배하여 움직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의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위가 모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행위 또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올

바른 나무는 올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올바른 나무가 될 때 당연히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영생이 연결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올바르면 행위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 이후에는 영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이 여전히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기 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의식과 마음이 빗나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 적중하였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몸의 움직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의로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몸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주체가 되셔서 나의 몸을 움직여 가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대로 살다가 죽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믿음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의의 무기로써 움직이는 행위가 나타나며, 이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는 믿음만이 영생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무기인 몸의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말씀의 의도를 칼날처럼 예리하게 반응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